

투표용지 소각·선거사무원 공격...과테말라 대선 '대혼란'

유권자 불법 수송 의혹 속 폭력행위 이어져 후보 22명 난립...8월20일 결선투표 가능성 커

중미 과테말라의 대통령 선거가 25일(현지시간) 투표용지 소각과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력 등 혼란 속에 치러졌다. 일부 투표소가 아예 운영되지 못하는 등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는 상황도 발생하면서, 개표 결과를 놓고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과테말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수도 과테말라시티를 비롯해 전국 22개 주에서 진행됐다.

유권자들은 3천482곳에 마련된 각 투표소를 찾아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 애초 순조롭게 이뤄지던 이번 선거는 각종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

서부 레탈룰레우 주의 산마르틴사포티틀란에서는 특정 정당에서 외부에 있던 유권자를 대거 수송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반발하는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는데, 경찰이 이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최루가스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는 누군가 투표용지를 대거 불태운 사실도 확인됐다.

과테말라 정부는 "한 무리의 성인들이 투표소에 들어가 빈 투표용지를 집어든 뒤 밖에서 불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표용지 소각 의자 6명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수도 인근 시골 마을인 산후안델골포에서는 선거사무원 13명이 전날 밤 주민들의 위협을 받았다는 정황 속에 아예 투표소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지역에서는 일부 유권자에 대한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투표함을 4곳의 투표소에 들이지 못하게 집단



25일(현지시간) 과테말라시티 인근 산후안델골포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소가 시위대의 방해로 폐쇄된 가운데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군인들이 도착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행동을 했다고 과테말라 일간지 프렌사 리브레는 전했다.

대체 투표소 마련과 주민 설득에 나섰

다가 실패한 과테말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국 오후 1시께 해당 지역 투표소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투표용지를

모두 회수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유권자는 아예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성에 큰 흠집이 난 이번 대선에는

2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부분 중도 또는 우파 계열 후보다. 과테말라 대통령 임기는 4년 단임제여서, 알레한드로 잠파테이현 대통령은 다시 출마하지 않았다.

현지 유력 매체 프렌사리브레에 따르면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산드라 토레스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토레스 후보는 알바로 콜롬 전 대통령(2008-2012년)의 부인으로, 2015년과 2019년에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이번이 3번째 대선 도전이다.

대선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과테말라에서는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그대로 당선이 확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현지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8월20일로 예정된 결선투표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결선에서는 2019년의 경우처럼 예선 1·2위 후보의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프렌사리브레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프리고진, 벨라루스에서 안전할까...“푸틴, 배신자 찾아낼 것”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루카셴코, 평화 만드는 사람 아니다’ 우려

러시아 정부를 겨냥한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이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용병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벨라루스 정부 중재 아래 크렘린궁과 바그너그룹이 맺은 합의에 따라 프리고진은 러시아를 떠나 벨라루스로 갈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25일(현지시간) 프리고진이 망명하더라도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에서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1994년 권력을 잡은 알렉산드르 루카

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외신에 '유럽에 마지막 남은 독재자'로 묘사된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했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알렉시 비알리야츠키 등 활동가들을 탄압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망명 중인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바슬라나 치하노우스카야는 "루카셴코는 결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아니다"며 "그가 프리고진을 어떻게 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망명한 정치 분석가인 아르템 슈라이브만은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간다고 해서 그가 그곳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는 벨라루스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도 벨라루스로 망명한다고 프리고진의 목숨이 안전하지 않다고 논평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에서도

배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하일 카시야노프 전 러시아 총리는 BBC에 "프리고진이 처음에는 벨라루스로 가겠지만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정글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이라면서 "푸틴은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는 현지 정정 불안에 틈타 내전이나 정권의 반대 세력 탄압에 개입하는 바그너 그룹 병력이 배치돼 있다.

프리고진을 따르던 용병들은 우선 개별적으로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러시아에서 동원 해제되거나, 벨라루스로 떠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에 오염수를 저장해 놓은 탱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터널 공사 완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 공사가 26일 완료됐다.

대형 크레인이 달린 배가 이날 오전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굴착기를 인양했다고 현지 민영방송인 후쿠시마 주오테레비가 보도했다.

잠수사가 해저터널 방류 접속 부위를 분리한 뒤 크레인이 금속 통에 담긴 굴착기를 인양했다.

이후 방류구에 덮개를 씌우는 공사를 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 공사는 끝난다.

도쿄전력은 전날 굴착기 인양 작업을 진행했으나, 파도가 높아서 중지했다.

터널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28일 시작할 방침이다.

이 검사가 종료되면 방류 설비의 준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아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 은 앞서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등을 돌아본 뒤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쿄전력에 "인위적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캐나다 토론토 시장 선거 후보에 101명과 개 한마리

북미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캐나다 토론토의 신임 시장을 뽑는 선거에 101명의 후보에 더해 강아지 한마리가 입후보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6살 된 울프 허스키 종 강아지인 '몰리'로 주인인 토비 힉스와 함께 동절기 과도한 소금 성분의 제설제 사용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토론토 시장

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힉스는 과도한 제설제 사용이 물리와 같은 강아지의 발을 상하게 할 수 있다면서 시장에 당선되면 소금 성분 제설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값 안정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증세, 신규 주택과 상업용 건

물의 화학연료 난방 금지 등 친환경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힉스는 시정에 동물이 있다면 좀 더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몰리를 토론토 최초의 명예 강아지 시장으로 임명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